

iMFDirect 블로그로부터:

아시아: 불확실한 세계에서 경기부양책으로부터 탈출하기

작성: [Anoop Singh](#)

저는 지난 번에 “아시아: 전세계의 경제 회복을 주도”라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했고([China](#) 참조), 금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발표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에 머물고 있습니다([Regional Economic Outlook](#) 참조). 두말 할 것도 없이, 인도는 중국 및 몇 개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leading the global recovery](#) 참조).

이와 동시에, 세계경제의 회복도 아시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아시아가 수출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제금융시장과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지난 주에 발생한 유럽의 금융 위기로 인해 경기하강 위험에 직면해있고, 계속 전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developments in Europe](#) 참조).

따라서, 최근의 아시아 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여왔고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속도의 결정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아시아 지역의 정책입안자들이 대처해야 할 단기적인 주요 과제는 통화 및 재정 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경제는 선진국 경제보다 더 빨리 회복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정책들은 전세계의 다른 지역들보다 더 일찍 정상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의 취약성으로 인해, 경기부양책의 철회는 서서히, 신중하게 진행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지역의 정책 구조가 최근 수년 간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시아 경제들은 재정 및 통화 운영에 다소 “여력”이 있어 외부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구” 전략의 적절한 속도는 각국의 경제상태에 따라 다르며, 경기 순환의 단계와 다양한 위험에 대한 노출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정상화 속도는 아직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화폐적 수용의 정도, 산출 격차가 감소하는 속도, 인플레이션 압력의 발생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비교적 경제적 간극이 적고 외부 수요에 대한 노출이 적은 경제에서는 정상화 속도가 생산 능력에 심한 제약을 받거나 불확실한 외부 수요에 대한 노출이 비교적 높은 경제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인도를 포함하는 몇몇 지역에서 최근의 몇 분기 동안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이 증가한 것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식품과 에너지 가격에 기인하지만, 또한 부분적으로 “근원” 소비자 물가의 상승에도 기인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격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요소 너머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복잡성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 긴축은 자본의 추가 유입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거시경제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대규모의 자본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그러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자본가격 및 부동산가격 같은 재산가격의 과도한 급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와 환율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많은 아시아 경제들은 재정 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시행했던 경기부양책을 금년에 부분적으로 철회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서 재정 상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일본은 제외)이 공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책을 서서히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전히 경기하강 위험이 높다고 전망할 때, 특정한 표적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위험 관리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들은 단기적인 전망에 그치지 않고,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여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유지함으로써 중기적으로 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Anoop Singh 은 IMF 의 아시아태평양 국장입니다. 그는 전임 서반구 국장이었고, 신흥시장, 경제 체제 전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유럽,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IMF 프로그램들의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인도준비은행 총재 특별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iMFDirect 가 2010년 5월 12일에 게시